

선수도 코치도 아낌없이 주는 K리그

신태용호 전폭 지원…K리그의 희생

K리그 선수들 조기소집 동의의 이어
부산 이재홍 피지컬 코치 파견까지

한국축구는 월드컵 9회 연속 본선진출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 남은 2018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성적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만큼 모든 축구인들이 대표팀을 한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축구의 근간이 되는 K리그의 희생을 빼놓을 수 없다.

K리그는 선수 차출을 비롯해 여러 방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대표팀이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첫 번째 어시스트는 조기소집 합의였다.

K리그는 신태용(47) 감독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표팀 조기소집에 동의했다. 8월 26일과 27일로 예정된 K리그 클래식(1부리그) 28라운드를 뒤로 연기해 조기소집 기간 온전한 훈련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덕분에 '신태용호'는 8월 21일 K리그 11명을 비롯한 16명의 선수들을 불러들여 일찌감치 최종예선 준비에 나설 수 있었다.

도움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임 올리 슈틸리케(63·독일) 감독의 중도 사퇴로 신태용호가 급박하게 꾸려진 탓에 대표팀은 피지컬 코치를 구하지 못했다. 기존의 루이스 플라비우(68·브라질) 피지컬 코치 역시 계약만료로 한국을 떠났다. 다급한 대한축구협회는 국내 코치진 가운데서 대타를 찾았다.

평소 연이 달았던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산 아이파크 이재홍(34) 피지컬 코치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대표팀 관계자는 "이 코치가 A대

표팀 합류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동안 연령별 대표팀에서 여러 경험을 쌓았기에 도움을 청했다. 다행히 본인과 구단 모두 승낙해 조기 소집일부터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선수단과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이 코치의 합류 뒤에는 부산의 통 큰 배려가 있었다. 현재 K리그 클래식은 휴식기지만 챌린지는 정규시즌이 한창이다. 부산 역시 8월 23일 성남FC와 26라운드를 치렀고, 앞으로도 계속해 홈과 원정을 오가며 일정을 소화한다. 부산으로서는 피지컬 코치 공백상태에서 선수단 컨디션을 챙겨야하지만, 한국축구의 결실을 위해 흔쾌히 이 코치의 파견을 수락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다양한 희생이 있기에 대표팀은 앞만 보고 나가면 된다. 여러모로 대표팀이 좋은 성과를 맺어야할 또 하나의 이유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부산 아이파크 이재홍(왼쪽) 피지컬 코치는 소속팀의 시즌 일정을 잠시 뒤로하고 '신태용호'에 합류해 태극전사들의 컨디션 관리에 힘쓰고 있다.
파주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신지애, 천신만고 끝에 마수결이 우승

JLPGA 니토리 레이디스서 시즌 첫 승
능장플레이 경고 등 고전…2타차 신승

신지애(29·스리본드)가 천신만고 끝에 일본 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신지애는 8월 27일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 컨트리클럽(파72·6548야드)에서 열린 JLPGA 투어 니토리 레이디스(총상금 1억 엔·약 10억원) 최종라운드에서 선두로 출발했지만 라운드 도중 능장 플레이로 경고를 받는 등 고전 끝에 2오버파 74타에 머물렀다.

2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몰아치는 등 3라운드까지 2위에 3타차로 앞선 신지애는 악전고투 속에서도 최종합계 10언더파 278타로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올 시즌 첫 승이자 JLPGA A 투어 통산 14승째다. 신지애의 마지막 우승은 2016년 10월 미쓰비시 일렉트릭 레이디스 대회였다.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같은 대회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우승상금 1800만 엔(약 1억 8000만원)을 받아 시즌 상금랭킹을 10위 이내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다.

신지애는 최종라운드 출발이 썩 좋지 못했다. 2번홀(파4)에서 한 타를 잃었지만 6번홀(파5)에서 버디를 낚으며 반등하는 듯 했다. 그러나 7번홀(파3)에서 슬로우 플레이로 경고를 받은 뒤 심



신지애

리적으로 쏙긴 탯인지 8번홀(파4)과 9번홀(파5)에서 연속 보기를 기록했다. 그 사이 2위권이었던 이민영(2(25·한화)과 이지희(38)의 거센 추격을 받았다. 12번홀(파3)에서 다시 보기로 2위권에 한 차타까지 쫓겼지만 18번홀(파4)에서 우승을 결정짓는 버디 버틀을 홀에 집어넣으며 환하게 웃었다.

신지애를 끝까지 괴롭힌 대만의 베이브 루가 8언더파 280타로 2위를 차지했다. 이민영2은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로 3위, 이지희는 5언더파 283타로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최용석 기자

수원FC 조덕제 감독 자진사퇴

클래식 잔류 실패…올 시즌 챌린지 8위
성적부진 책임감…직접 구단 찾아 사의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수원FC 조덕제(52) 감독이 지휘봉을 놓았다.

수원FC는 8월 26일 "조 감독이 자진 사임을 결정했다. 후임 감독 물색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 감독은 25일 직접 사무국을 찾아 성적부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준호 수원FC 이사회장을 비롯한 이사회가 긴급 이사회를 열어 올 시즌 끝까지 조 감독에게 팀을 맡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조 감독은 오히려 이사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팀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는 지금이 감독 교체와 적기라는 것이었다. 구단 이사들은 결국 조 감독의 사의를 수락했다.



조덕제 감독

조 감독은 2015년 팀을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 올려놓는 등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공격축구의 한계를 드러내며 2016년 1부리그 잔류에 실패했다. 올 시즌 팀의 재도약을 위해 애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수원FC는 27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FC안양과의 홈경기 이전까지 5연패에 빠지는 등 7승9무10패(승점30)로 리그 8위에 머물러 있었다.

조 감독은 2011년 유소년 총감독으로 수원FC와 인연을 맺었다. 2012년 내셔널리그, 2013~2015년 K리그 챌린지, 2016년 K리그 클래식, 2017년 K리그 챌린지까지 6년간 수원FC 지휘봉을 잡았다. 최용석 기자



김홍택(가운데)이 8월 27일 부산 해운대CC에서 열린 KPGA투어 카이도시리즈 동아회원권그룹 다이나믹 부산오픈에서 우승을 거둔 뒤 물세례를 받고 있다.
뉴시스

필드 접수한 '스크린 황제' 김홍택

신인 김홍택(24·AB&I)이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김홍택은 8월 27일 부산 기장군 해운대CC 로얄·실크코스(파72·7054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안 투어 카이도시리즈 동아회원권그룹 다이나믹부산오픈(총상금 7억원)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2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해 10번째 대회 참가 만에 생애 처음으로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12년 정회원자격을 얻은 그는 2013년 군에 입대했다. 지난해 복귀한 뒤 챌린지(2부) 투어 상금랭킹 7위로 올해 코리안 투어 시드권을 확보했다. 이번 대회 이전까지 9개 대회에 출전해 2개 대회에서만 본선에 진출하는데 그쳤다. 가장 좋은 성적은 공동 33위였고, 총 상금은 379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달랐다. 2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기록하며 단독선두에 나선 이후 한 번도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고 정상에 섰

다. 올해 신인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우승자 대열에 합류했다.

2위에 6타차를 앞서 올해 최다 타수 차이 우승까지 달성했다. 우승상금 1억4000만원을 챙긴 김홍택은 신인왕 레이스에도 본격 가세했다.

김홍택은 아마추어골퍼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다. 스크린골프대회에서 4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필드 우승은 처음이지만 스크린골프가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장타로 눈길을 끌었다. 드라이브 거리를 측정한 대회 1·2라운드 평균 313.98야드를 기록했다.

김홍택의 우승으로 시즌 다승자 출현은 다음 대회로 미뤄진 가운데 맹동섭(30·서산수골프앤리조트)과 이근호(34·볼빅)가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정환(26·PXG)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4위에 오르며 제네시스 포인트(4110점) 선두를 굳게 지켰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KPGA 카이도 부산오픈서 데뷔 첫 승
루키시즌 10번째 대회 만에 우승 환희



김홍택이 8월 27일 부산 해운대CC에서 열린 카이도시리즈 동아회원권그룹 다이나믹 부산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을 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이란전 입장 관중에 붉은색 티셔츠 무료배포
대한축구협회는 8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9차전에서 입장관중 전원에게 붉은색 티셔츠를 무료 배포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지난해 월드컵 최종예선 홈경기에서 선착순 2만 명에게 붉은 티셔츠를 증정한 적은 있지만, 입장

관중 전체에 티셔츠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경기는 8월 26일까지 약 4만 5000장의 입장권이 판매됐다. 축구협회는 6만장 이상의 티셔츠를 준비하고 있다.

北 한광성, 세리에B 개막전서 헤트트릭 폭발
북한 출신의 축구 유망주 한광성(19·페루자)이

8월 2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제노바 키아바리에서 열린 비루투스 엔텔라와의 2017~2018 이탈리아 세리에B(2부리그) 개막전에 선발 출전해 헤트트릭을 기록했다. 페루자는 5-1 대승을 거뒀다. 세리에A(1부리그) 칼리اری에서 8월 8일 페루자로 임대 이적한 한광성은 개막전부터 맹활약을 펼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전지희 활약’ 한국여자탁구 U-대회 단체전 사상 첫 금

한국 여자탁구가 유니버시아드 대회 단체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 전지희(포스코에너지)~이은혜(대한항공)~안영은(영산대)으로 구성된 한국대표팀은 8월 26일 저녁(한국시간) 대만 뉴 타이베이시티 신창체육관에서 열린 2017하계유니버시아드 여자탁구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이기고 올라온 일본을 3-2로 힘겹게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이 유니버시아드 대회 여자탁구 단체전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출신으로 2011년 귀화한 전지희의 활약



전지희

이 돋보였다. 준결승에서 대만을 꺾고 결승에 오른 한국은 1단식에서 전지희가 스즈키 리카를 3-0으로 완파했다. 하지만 이은혜와 안영은이 2,3단식에서 각각 안도 미나미와 나루모토 아야미에게 1-3, 0-3으로 지며 위기에 몰렸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구세주는 전지희였다. 4단식에 나서 안도를 3-1로 제압했다. 기사화생한 한국은 마지막 단식에서 이은혜가 스즈키를 3-0으로 꺾으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남자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중국에 1-3으로 져 동메달에 그쳤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hg2@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